

코스피	2632.07 (-11.06)	코스닥	720.22 (+0.81)
금리 (3개월)	2.604 (+0.007)	환율 (원/달러)	1466.15 (+3.45)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尹 대통령 심판에 촉각

기각의견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87일만에 대통령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의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각 진영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이지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 의무는 없다고 보고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혼자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임명 보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

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의 결정적 요소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의 기각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낮 12시쯤 국무위원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며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또 국정이 좀 더 안정되도록 하는 데, 이제까지 해주셨던 그 일을 계속해가면서 서로 힘을 보태 앞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5년 만에 돌아오는 '롯데의 후' 해외사업 확장 통해 한계 돌파

신동빈, 롯데쇼핑 사내이사 복귀 내수부진 한계극복 위해 '지휘봉'

싱가포르 등 PB 상품 수출국 확대 군산·잠실점 등 백화점 리뉴얼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복귀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직접 지휘하며 해외 사업 부문을 확장해 국내 내수 부진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롯데쇼핑은 내수 시장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롯데쇼핑 매출은 13조 9866억원, 영업이익은 4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 6.9% 감소했다.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를 느낀 롯데쇼핑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사업에 눈을 돌린 셈이다. 유통시장의 전통적 강호 롯데그룹이 내수부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24일 서울 영등포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자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총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 선임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롯데쇼핑은 신 회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본격적인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에 올랐으나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유통 부문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셈이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를 기점으로, 업부별 사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내실을 강화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주총회에 참여한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 대표 부회장은 "25년에는 고부가·글로벌 사업을 통해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해외 사업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부회장은 "국내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와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 운영법인을 설립, 해외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베트남 복합쇼핑몰 사업인) 웨스트레이크(West Lake)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복합단지 및 쇼핑몰 중심의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수출국을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사업부의 경우 타임빌라스 군산 리뉴얼 오픈을 시작으로, 잠실점, 본점 등 주력 점포의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상권 내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화점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그룹사 복합 단지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D램·낸드 가격반등... 반도체 시장 '봄볕'

해외IB, 반도체社 실적 긍정 신호 올 하반기 슈퍼사이클 가능성도 삼성전자 영업의 전망 38% 상향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일제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 29조 4000억원에서 40조 8000억원으로 38.4%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SK하이닉스를 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조감도. /SK하이닉스·용인특례시

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일반 D램 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가격은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고성능 D램인 DDR5(16GB 기준) 제품의 현물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4.9달러에서 5.1달러로 7.8% 상승했다. 7개월 만의 상승세다. 범용 D램인 DDR4(8GB 기준) 역시 지난

7일 1.442달러에서 현재 1.49달러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인다.

주요 제조업체들이 감산 정책을 지속하고 공급 조절을 이어가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사 샌디스크는 내달 1일부터 모든 낸드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양쯔메모리(TMTC)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대만전자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월부터 낸드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장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범용 메모리 생산을 조정하는 한편,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메트로신문 2025 100세 플러스포럼 개최

오늘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 "관용 없어" /사진 뉴시스
▲ 안철수 "이재명, '韓 탄핵기각'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트럼프와 전화 한통 못해"

▲ 개혁신당 "헌재,尹 위한 행위에 명확한 판단 내려야"
▲ 외교부,美·日·中에 韓대행 탄핵기각 설명... "양국 관계 변함없이 발전"

▲ 김문수 장관 "한덕수 직무복귀 환영...尹도 탄핵 기각돼야"
▲ 우원식 "헌재도 위험 명시...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호반그룹, LS지분 땅따먹기 매입 특허소송·분쟁대응 전략 가능성

호반 “단순 투자” 선 그었지만
‘LS 경영개입’ 위한 포석 우려

대한전선의 모 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 회사 LS그룹(LS)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반그룹(호반)측은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기술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LS의 경영안정성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은 최근 LS의 지분을 약 3% 미만으로 매입했다. 호반이 확보한 지분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은 아니다. 호반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은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등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법상 특정기업의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 해임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사 총실의 무범위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호반이 추가 지분 확보 시 소수 지분만으로 LS그룹에 대한 압박

이 가능하다.

호반의 뜬금없는 지분 매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호반건설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7.43%를 683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호반 측은 ‘단순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진칼이 사모투자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영권 개입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LS의 가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는 32.1%다. 가문별로는 구태회(家) 11.1%, 구평화가 15.3%, 구두회가 5.6%로 절대적인 지배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호반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12월 20일) 전 LS 지분을 3% 매입했을 경우 오는 27일 LS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난 1월 말까지 LS 주주명부에 호반그룹 계열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LS가 적극 대응에 나서는 시점을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해저케이블 설계도 유출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기술과 관련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담긴 레이

아웃을 부정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LS전선의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1~4공장을 설계한 가운데 LS전선의 총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으며 주요 설계 노하우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전력 배전에 사용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권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저케이블 수사 결과 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장재혁 연구원은 “호반그룹의 단순 재무적 투자 또는 특허소송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며 “LS그룹 경영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LS 고위 관계자는 “전선업계가 호황인 것은 맞지만 경쟁사 지분 매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영권 개입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산업부

“美 상무부, 상호관세 결정 ‘한국에 우호적 고려’ 언급”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성과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제로 수준 한미 실질관세 설명
러트닉 美 상무부 관도 이해해”
“미국산 구매·투자, 美 관심사”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부 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러트닉 상무부 장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 간 한미 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 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 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리더십 부재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도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상의,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정적’

BSI 전분기보다 18p 오른 79 집계
대기업 71, 중견기업 83, 중기 79

미국발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 지수 전망치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79’로 집계됐으나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미쳤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

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경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에서도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덤핑 등

약제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이하를 기록했다. 자동차(74)업종도 미국·EU 중심 무역장벽 강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며 체감경기가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87)업종의 경우 트럼프 집권 이후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지속되며 전망이 악화됐다. 내수산업인 식음료(80)업종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 부담 누적으로 최근 제품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승용 기자

“메모리 수급상황 확인, 투자전략 점검을”

>> 1면 ‘D램·낸드 가격 반등...’서 계속

삼성전자는 레거시 공정 라인 운영을 최적화하고 고사양·고용량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단했던 펄스 캠퍼스 투자도 연내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한 청주 M15X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등 신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

이다. 김정우 SK하이닉스 부사장은 “M15X 건설 등 인프라 투자는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과 무역 이슈 등 외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민 기자 hyem@

마트·슈퍼, 원가절감 중심 전략 재구축

>> 1면 ‘5년만에 돌아오는...’서 계속

마트·슈퍼 사업부의 경우, 상품 경쟁력 강화, 구매 원가 절감, 신선식품 품질을 혁신해 국내 사업은 효율화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은 확장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구축한다. 이외에도 마트 신규 그로서리 애플리케이션 제타(ZETTA) 출시와 더불어, 오는 2026년 부산에 오픈할 플립먼트센터(CFC) 1호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e커머스 사업부는 패션·뷰티 카테고리 중심으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롯데타운을 비롯한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고정비 및 조직 효율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구상이다.

김부회장은 “2025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쇼핑은 고객의 첫 번째 쇼핑목적지가 되기 위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을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 없었다... 尹 탄핵심판 예측 힘들어

내란방조 관련 증거·자료 부족
‘헌법재판관 불임명’ 의견 엇갈려
일각선 ‘비상계엄’ 배제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현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도 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판단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정형식	 조한창
진보 기각	진보 기각	중도 기각	중도 기각	중도 보수 기각	진보 인용	보수 각하	보수 각하

특검 재의요구권, 비상계엄, 공동 국정운영, 특검 미추천 등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법률위반, 다만 파면 정당화 사유는 안됨.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헌법과 법률 위반 아냐.

특검 미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 정당화할 수준.

대통령 권한대행 겸인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됨. 탄핵소추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부적법.

자료: 헌법재판소 / 뉴시스 그래픽

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과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

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현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정략적 탄핵 재확인” 野 “국민이 납득하겠나”

여권, 연쇄 탄핵 부당성 지적
야권,尹 대통령 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현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쫓겨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나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DB손해보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원자재부터 생산까지... 美 '완결형 현지화' 전략 가동

posco

⑤ 포스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취임 1년을 넘기며 사업 구조 재편과 지배 구조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불필요한 사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일본제철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핵심 사업 중심의 전략을 고수해 왔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철강 분야 통상 리스크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포스코의 글로벌 전략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과 대응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내 철강 생산라인 전면 구축 쇳물 주조·철강재 생산 등 현지화 관세 장벽 넘기 위한 전략적 투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물론 철강, 이차전지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US스틸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해외 철강업체를 자국으로 유치해 안보 핵심 물자인 쇳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면제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 규정도 전면 철폐됐다.

◆현지 투자로 관세 장벽 정면 돌파 포스코는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7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관세 장벽에 맞설 방침이다. 쇳물 주조부터 철강재 생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산 거점을 해외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제57회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미국과 인도 같은 고성장·고수익시장에서 완결된 현지화 전략을 실행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인도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수요 역시 7%씩 늘어 2030년 1억 9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는 지난 2024년 10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철강,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인도 동부에 연간 생산능력 500만톤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를 짓고 이를 추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의 'LNG'에서 기회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시장 공략에도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이를 관세와 연계해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는 화석 경제를 부흥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 LNG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도 시장 연평균 6.7% 성장 전망 철강 수요 7% 증가 예상 대응 강화 JSW그룹과 협력해 생산 확대 목표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핵심 인사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내주 방한해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프로젝트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에너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그 대상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완화하는 외교·경제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LNG 저장탱크용 '극저온 고방강간'을 개발했으며 해당 소재를 적용해 포스코 이앤씨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을 완공하기도 했다.

장 회장도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역할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장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밸류체인 간 연계 강화와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찾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미국이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넓힐 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은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국 내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철강재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보았을 때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가 사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6만전자·21만닉스' 돌아왔다... 외국인, 반도체 '사자' 행진

K-반도체 반등 기대감에 코스피 상승 외국인, 8개월 만에 삼성전자 순매수 모건스탠리 "반도체 침체 벗어나"

국내 반도체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핀테크와 방산주를 비우고 그 자리에 반도체를 담는 모양새다. 외국인 '사자'에 삼성전자는 최근 5개월 만에 '6만전자' (주가6만원대)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21만닉스' (주가21만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11.01% 상승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2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3월들어 11.20% 상승했다.

외국인의 '사자'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3263억원, SK하이닉스 주식을 3483억

원 가량 순매수했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했다.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고, 이달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는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4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갤럭시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와 폴더블폰의 인기 덕분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61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분기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가 판매량 증가에 기여한 가운데 특이 고가 모델인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46%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3800만대로 전작인 갤럭시 S24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며 추가로 2분기에 슬림 모델인 S25 엣지가 출시돼 연간 판매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

원은 "일반 메모리칩이 스마트폰, PC, 서버에서 차례로 재구조정이 완료돼 수요가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NAND(플래시메모리칩의 일종)는 공급자 감소와 모바일·PC의 수요 증가 덕에 공급자가 격 인상이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HBM은 TSMC가 올해 A1칩 생산계획을 10% 하향 수정했지만 내년 계획은 유지했고, 올해 HBM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둔화해도 업계는 SK하이닉스의 물량 확보를 먼저 할 것으로 보이며 HBM 시장 내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올해 56%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31일 재개되는 공매도 역시 반도체 기업 주가에 긍정적이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현재 국내 외국인 수급이 저점 국면이어서 확대 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하은기자 goche@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美, 구체적 사유 공유 안했다”… 아직도 이유 모르는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외교부, 두달간 지정사실 모르고
정확한 원인 파악 못해 정부 못매

홍기원 의원 “문제 원인 모르는데
美서 해결방안 설명요구, 납득안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 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으로 민감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청년 목소리 배제 ‘연금개혁’… 강제 깃돈 넣으라는 것”

국회 ‘모수개혁안’ 처리에 반발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 ‘반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세대가 ‘못받는다’ 인식뎌 저항”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균·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능

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깃돈을 넣으라는 데 지금 넣는 깃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깃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

은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게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저지 정치인 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국부펀드로 산업발전·불평등 완화 ‘두 토끼’ 잡아야”

기본소득 연구포럼
‘K-엔비디아’ 뒷받침 세미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

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이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

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

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과 등 매각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제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

을 수 있다고 했다. 유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하교환기) 개발 사업, CDM(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리내집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만드는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



서울시가 구해주는 신혼집, 미리내집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II)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혼 예정 및 7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유무 무관)


39㎡ 부터 84㎡ 까지
다양한 면적


입주 후 아이 출생 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출생 시
시세 90% 매입
(3자녀 시 80%)



‘제4 인터넷은행’ 변수 속 혼전… 유력 컨소시엄 잇단 철수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및 현황〉

은행(가칭)	컨소시엄 참여사·기관	특징	참여여부
더존뱅크	더존비즈온	중소기업현대해상·소상공인 특화은행	불참
소소뱅크	지역소상공인연합회현대해상·11개정보통신기술업체	소상공인·소기업 특화은행	참여
유뱅크	렌딧·현대해상·루닛·트래블월렛 등	시니어·소상공인·중소기업·외국인 포용 금융	하반기 유예
포도뱅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국소기업연합회 등	재외동포 특화은행	참여
한국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우리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은행	참여
AMZ뱅크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	농업인·MZ세대를 위한 챌린저 은행	참여

탄핵정국 혼란·경기침체 지속
더존뱅크 예비인가 신청 철회
유뱅크도 신청시점 재검토
소소·AMZ뱅크 등 경쟁 전망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앞두고 유력 컨소시엄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시기를 지켜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4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어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후보로 유력했던 더존뱅크가 최근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더존뱅크를 추진했던 더존비즈온은 경영관리 핵심 업무 플랫폼인 ERP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인터넷은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신청을 검토해 왔지만,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보다 안정적인 방향을 택했다”며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은 402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원(ONE) 인공지능(AI)은 기업에 맞는 AI를 도입, 보안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출시 6개월 만에 2000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진입할 경우 수 천 억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다. 통상 인터넷은행의 경우 출범 뒤 최대 4년

간 적자를 기록하는 만큼, 기업의 재무 등 정보를 수집하는 ERP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더해 혁신금융플랫폼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뱅크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재검토한다.

유뱅크를 추진하는 렌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대출이 필요한 개인(또는 집단)과 투자가 필요한 개인(또는 집단)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업평가모형을 개발해 왔다. 함께 컨소시엄에 뛰어드는 현대해상과 트래블월렛 등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더해 중소기업과 고령층,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유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결정했다”며 “신청 시점은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네 번째 인터넷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체제를 비판하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제시된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불안해지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폭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 심사는 한국소호은행과 포

도뱅크, AMZ뱅크, 소소뱅크가 경쟁할 전망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한국신용데이터와 은행 카드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포도뱅크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워크스톤파트너스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추진한다. 현재 50여 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와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챌린저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올해 중 본 인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잇단 건설현장 화재사고, 공정 전반 위험관리평가 필요”

보험업계 “건설공사보험제도 한계
공정별 위험관리보고 의무화해야”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고 후 보상’을 넘어서 ‘사고 전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국립한글박물관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불이 나 5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건축 현장의 특성상 공사 완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용접·용단·연마 같은 불꽃 작업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탓이다. 지난 2020년 이전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도 공정률이 80% 이상

인 상황에서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현행 감리제도와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위험관리에 대한 한계가 꼽힌다. 감리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안전관리보다는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근로감독관 역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현장 감독이 충분치 않다.

문제는 건설사고를 보장하는 건설공사보험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건설공사보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미비로 인해 보험사의 건설 현장에 대한 위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건설 현장 위험 평가는 보험계약 전에 언더라이팅 목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진단 보고서’ 작성에 한정된다.

보험사는 공정 단계별로 건설 현장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보험사는 건설 현장 위험평가를 위해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사 초기에만 작성되는 탓에 화재 예방이나 공정 단계 전반에 걸친 위험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공사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위험진단 보고서의 위험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공정 단계별로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위험진단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능성,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사 중 위험도, 주변 인접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등 공사 시작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들만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 범위를 건설사의 안전사고 이력이나 안전 관리 역량 등으로 확대하고 위험진단 보고서를 보험료 차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률(25%, 50%, 75% 등)에 따라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현행 관급공사에서만 제출하는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전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롯데건설컨소시엄
부산 연산 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3일 열린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20만8936.6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45층, 14개동, 총 2803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4447억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53%, 롯데건설이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 단지명의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첨단 미래도시의 상징인 센텀(Centum)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 높이의 자연 조망 단지를 완성해 부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는 타워형 위주의 배치 계획을 통해 수영강, 장산, 배산 등의 조망을 개선했다. 모든 조합원이 바다, 강,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3면 개방 특화,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조망 특화 평면을 적용해 모든 세대에 최적의 조망 프리미엄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45층 최고층에 조성하는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는 탁 트인 아름다운 풍경과 단지의 상징적인 경관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스카이라인 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루프탑 라운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 나스닥100 수익률 2배

미래에셋생명 기술혁신수혜 극대화
성장성 있는 중소형 SW 기업 투자

미래에셋생명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가 지난 4일 기준 연평균 수익률 21.8%, 누적수익률 125%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 기업들에 투자한다. AI 및 클라우드 등에 분산투자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올 3월 3일 기준 나스닥100 지수가 1년간 12.1% 상승한데 비해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

드는 동일 기간 21.8% 상승했다. 비교 지수 대비 약 2배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69.03%) ▲ 글로벌 엑스 클라우드 컴퓨팅(Global X Cloud Computing) ETF(13.91%) ▲ 블랙록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펀드(BlackRock Next Generation Technology Fund)(13.72%)에 투자해 IT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빅테크 중심의 대형 소프트웨어 주식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성

장성 있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등 역동적 성장과 확장이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선두 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미래에셋생명에서만 제공하는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술 혁신의 수혜를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

현대차·기아, 美 시장 종횡무진... 누적판매 3000만대 목전

지난달 기준 2930만3995대 기록
아반떼 > 쏘나타 > 쏘타페 > 투싼 順
현지생산 등 시장 변화 적극 대응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누적 판매 3000만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39년 만이다.

2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198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누적 판매는 현대차 1711만 6065대, 기아 1218만 7930대로 총 2930만 3995대를 기록했다. 올해 70만 대만 더 팔면 3000만대 고지를 넘어서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차 91만 1805대, 기아 79만 6488대를 판매하며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이로써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 자리를 수성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진출은 1986년 1월 현대차가 울산공장에서 생



현대차 아반떼.



기아 쏨렌토.

산한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현대차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기아는 1992년 기아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1994년 2월 '세피아', 11월 '스포티지'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조지아주 공장을 2010년 완공했다.

현대차·기아는 1990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04년 500만대를 넘어섰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1년에는 1000만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매년 100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2018년에는

2000만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까지 25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2000만 대 판매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다. 아반떼는 199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까지 388만대 판매됐다. 그다음으로는 쏘나타(342만대)와 쏘타페(238만대), 투싼(187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아는 쏨렌토가 2002년 미국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183만대 판매됐다. 그다음으로는 스포티지(166만대)와 쏘울(152만대), K5(150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친환경차 등으로 판매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 128만4066대로 전체 판매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판매 상승을 이끌었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해 6948대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7만5003대로 꾸준한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질 면에서도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텔루라이드, 2021년 아반떼, 2023년 EV6, 2024년 EV9 등 5년간 4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또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25 잔존가치상'에서 코나 일렉트릭이 전동화 SUV 부문, 텔루라이드가 3열 중형 SUV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양산을 시작한 조지아주의 친환경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정상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가며 현지 공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는 HMGMA에서 전기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급변하는 미국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판매 호조에 높은 상품성과 유연한 생산체제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올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000만 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계 정기 주주총회

신학철 사외이사 연임... “전지재료 등 3대 新성장동력 집중”

(LG화학 부회장)



성과 중심 R&D·현금흐름 개선 의지
“AI·디지털 전환 활동 가속화할 것”

“중국,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석유 화학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도 글로벌 정책 기조의 변동성 심화로 올해는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및 ESG분야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호하므로 당사는 보다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LG화학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 부회장은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전지재료, 지속가능 사업,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LG화학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G화학

신약 등을 내세웠다. 그는 “전지재료 사업은 당사의 제품 및 기술 기반으로 고객에 차별화된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핵심 역량을 쌓으며 경쟁 우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사업과 관련, 신 부회장은

“수처리 식물성 오일(HVO)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화학적 재활용 초임계 기술의 실증을 위한 플랜트 건설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저탄소 기술인 DRM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신약 사업은 시장에 대한 고도화된 통찰을 통해 기존 과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후기 단계의 함양 자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중심 연구·개발(R&D)로의 전환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 맞추어 기존 R&D 과제 재정비 및 신규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효율적인 R&D 진행을 위해 내부 자원 최적화 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활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금 흐름 개선에도 의지를 내비쳤

다. 그는 “모든 비용을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후 내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우선 순위 조정과 최적의 자원 투입으로 재무 건전성을 지속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매각,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 신 부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됐다. 신 부회장은 향후 2년간 LG화학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연임한다. 이외에도 ▲배당절차 개선 및 지점 등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권봉석(주)LG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조화순·이현주 사외이사 재선임 등을 통과시켰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모델이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모니터 신제품 공개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등 선보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안경 없이 입체감을 즐길 수 있는 '오디세이 3D'를 포함한 2025년형 프리미엄 모니터 신제품을 24일 공개했다.

신제품은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이다.

오디세이 3D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다. 패널 전면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하고, '인공지능(AI) 3D 영상 변환' 기술을 통해 일반 2D 영상을 실시간 3D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7형과 32형으로 출시된 '오디세이 OLED G8'은 4K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OLED 글래어 프리' 기술로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7'는 세계 최초로 4K 화질, 16:9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하며, 모델별 최대 15만 원 할인 쿠폰과 JBL 게이밍 헤드셋·스피커를 증정한다.

/이혜민 기자 hyem@

문혁수 “반도체 기관 경쟁력 강화... 2030년 매출 3조 달성”

(LG이노텍 대표)



연내 유리기관 생산장비 반입 예정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유리기관 생산 장비를 올해 10월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리기관과 FC-BGA(플립칩-볼그리드 어레이)를 중심으로 고부가 반도체 기관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까지 연매출 3조원 이상을 달성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사진)는 2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카메라 모듈에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G이노텍은 신사업인 FC-B

GA와 차량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사진)는 2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카메라 모듈에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G이노텍은 신사업인 FC-B

GA와 차량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향 FC-BGA 두 곳은 이미 수주해 구미 4공장에서 양산 중이며, 또 다른 빅테크 한 곳은 새로 수주해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AI·서버용 등 하이엔드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FC-BGA 사업을 2030년까지 조 단위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 부품 사업인 차량용 센싱 등 자율주행 핵심 부품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크에 관련해 여러 생산지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의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멕시코 신규 공장은 7월 완공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다.

한편 LG이노텍은 이번 주총에서는 통상 분야 전문가인 김경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영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침대는 시몬스’ 새 시대 열었다 프리미엄 공략으로 실적 ‘깡충’

지난해 매출 3295억 기록
2년 연속 업계 1위 자리 지켜
초고가 제품 판매 호조 ‘주효’
N32·펫 매트리스 성장 동력 ↑
에이스침대는 매출 3260억

시몬스가 또다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침대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인 에이스침대 매출과는 35억원 차이다. 시몬스는 에이스침대 창업주인 고 안유수 회장의 차남 안정호 대표가, 에이스침대는 장남 안성호 대표가 각각 이끌고 있다. 시몬스는 올해 매트리스 등 제품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329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매출 3138억원보다 5%(157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5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나 성장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대비 6%포인트 높은 16%를 기록했다. 작년에 비상경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 효과를 특히 봤다.

시몬스 침대는 초고가 제품인 ‘뷰티레스트 블랙’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판매 확대, 비건 매트리스 ‘N32’를 앞세운 멀티 브랜드 전략 등을 지난해 실적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뷰티레스트 블랙은 지난해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300만원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5성급 특급 호텔에서 시몬스 브랜드 점유율은 90%에 이르고 있다”면서 “N32를 내세워 프리미엄 폼 매트리스 시장 추가 공



안정호 시몬스 대표.

/시몬스

략에 나섰다, 업계 최초로 ‘3대 펫 안심 인증’을 획득한 펫 매트리스 등 반려동물용품 관련 시장에 진출해 미래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15억5000만원을 들었다. 이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바나듐 포켓스프링’ 개발,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비건 매트리스 출시, 사람이 쓰는 침대와 같은 원재료·공법으로 만든 펫 매트리스 출시 등을 주도했다.

시몬스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며 총 14억8000만원을 기부했다.

업계 최초의 ‘ESG 침대’로 불리는 ‘뷰티레스트 1925’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회사가 소비자가 격의 5%를 별도로 적립,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정호 대표는 “지난해 시몬스는 소

비자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업의 본질인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했고,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특히 올 한 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유독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품 가격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32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3064억원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662억원으로 1년새 16% 증가했다.

에이스침대 역시 ‘로얄에이스’를 중심으로 한 최고급형 매트리스 매출 증가를 비롯해 체험형 매장인 ‘에이스스퀘어’ 확대, ‘침대는 과학’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 전략 다각화 등을 실적 향상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전국에 54곳의 에이스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곳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027년 매출 두 배… 글로벌 톱3 도전”

생산성 30% 향상·기술개발 박차



매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3 이차전지소재 회사로 도약해 그룹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임직원들의 역량과 주주들의 지지 속에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현실화로 그룹 차원의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원료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의 강점이 부각되며 완성차 제조사(OEM)들의 공급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사진)은 24일 ‘제54기 포스코퓨처엠 정기주주총회’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임사장은 “캐즘(수요정체기)을 기회 삼아 설비 강건화로 생산성을 30% 높이고 공정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격차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로써 2027년에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의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된 후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선임됐다. 허경욱 이사는 다년간의 경제·재무 업무 경력과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 보유 등 직무전문성을 인정 받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신규 선임됐다. 주총에서는 사내외이사 선임 외에 ▲제54기 재무제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총 4건의 안건이 승인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전선, 자회사와 해상풍력 시너지 강화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

LS전선이 자회사들과 손을 잡고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자회사는 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시

공, 핵심 부품 공급,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각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해상풍력 산업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스마트상점 사업, 브로커 뿌리 뽑는다”

소진공, 불법 대리신청 등 엄중 단속
보조금 관리 규정 따라 강력 제재
사칭 문자 적발 “점검·홍보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대한 브로커 개입 등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사칭 행위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서다.

24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사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참여시,
브로커 및 기술기업의 부당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신청 금지	부당이득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리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 사업진행 서류 대리작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금 대납 금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배너

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당 개입 적발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진공은 부당 행위를 적발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달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적발했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효성티앤씨, ‘감탄브라’ 고기능성 원단 적용

그리티와 ‘에어소프트’ 선보여

효성티앤씨가 라이프스타일웨어 기업 그리티와 협력해 고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20일 그리티 본사에서 그리티와 기술 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효성티앤씨가 생산한 고기능성 원단을 그리티 주요 브랜드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효성티앤씨의 ‘아쿠아프렐쉬25’를 그리티의 언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에 적용했다. 이를 활용한 신제품 ‘2025 에어소프트’가 지난 2월 출시됐다.

아쿠아프렐쉬25는 뛰어난 냉감 효과와 흡습속건 기능, 땀 냄새 중화 효과를 갖춘 고기능성 원단으로 부드러



지난 20일 그리티 본사에서 장성민 그리티 사업본부 총괄본부장 부사장(왼쪽)과 임장규 효성티앤씨 상무(CMO)가 양사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 업무 협약을 맺은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효성티앤씨

운 촉감과 밀착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윈더브라, 플레이텍스, 저스트마이스리즈, 베네통 등 그리티의 전 브랜드로 기능성 원단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Samsung
Financial Networks

차량관리가 쉬워진다 삼성화재 Car케어

※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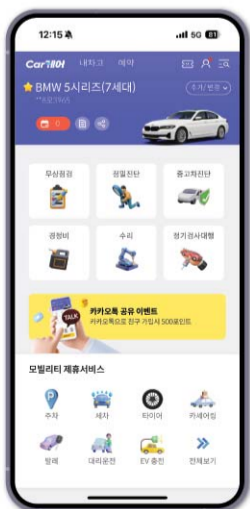
차량 점검



경정비



정기검사대행



모바일로 차량관리를 간편하게 끝내세요!

차량 점검, 수리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과까지 확인 가능

삼성화재만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애니카렌드(경정비)
#애니카패밀리센터(수리)

모바일로 끝내는
정기검사대행 서비스
신규 OPEN
(픽업 서비스 제공)

주차, 세차, 렌터카
제휴 서비스 제공



Car케어

삼성화재

본 서비스는 삼성화재 모바일 홈페이지와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r케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소모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일부 휴대폰 기종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616호 (4072, '25.02.04~'26.02.03)

SKT, 글로벌 동맹 굳히기... '투게더 AI' 투자로 복미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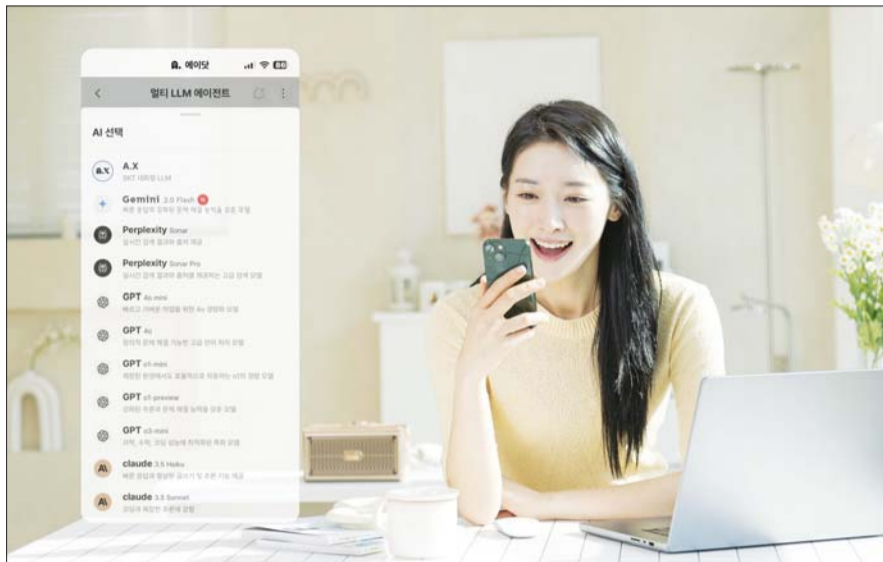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가속화
엔트로픽·퍼플렉시티 등 투자 이어
AI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적 행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전방위 협력하는 것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4일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 '투게더 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엔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유망 AI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는 쾌거를 맞았다.

투게더 AI는 AI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됐다.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추론과 파인튜닝,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기반한 저비용 GPU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AI 효율화 분야의 혁신적 알고리즘인 '플래시어텐션' 개발로 유명한 주요 연구진들이 참여해 줌, 워싱턴포스트,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AI 에이전트 'A.'에 구글 자체 LLM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비롯해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 'GPT o3-mini'를 추가하는 등 멀티 LLM 에이전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SKT 모델이 새로 추가된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이용하는 모습. /SK텔레콤

50만 고객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억5000만 달러(447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비폴 베드 프라카시 투게더 AI 공동 창업자 겸 CEO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은 투게더 AI에도 중요한 파트너십이며 SK텔레콤의 새로운 개인 AI 에이전

트를 개발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복미 시장 진출을 앞둔 글로벌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 LLM, GPU 효율화와 관련해 투게더 AI와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체 LLM인 '에이닷엑스(A.X)', AI 데이터센터 등 AI 영역 전반에서 추가 사업협력 여

이템 및 시너지 창출 기회를 탐색하면 투자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글로벌 AI 기업과 SK텔레콤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자체 개발 AI 모델 에이닷엑스(A.X)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멀티 LLM을 기반으로 통신분야(텔코) LLM을 개발해 다양한 사내 운영 업무 및 비즈니스에 활용 중이다. 고객센터에는 클라우드를 파인 튜닝한 텔코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해 상담원이 고객 상담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엔트로픽 블로그를 통해 클라우드를 베이스 모델로 파인튜닝된 텔코 LLM의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 고객센터에 텔코 LLM을 적용한 후 고객센터에 적용된 LLM의 저품질 응답 비율이 68% 감소했고, 통화 후처리에서 AI의 응답 품질이 인간 상담원의 약 89% 수준으로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에이닷에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에이닷에서 에이닷엑스와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Perp

exity) 등 5개 글로벌 대표 AI 서비스의 세부 모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은 A.X부터 챗GPT까지 글로벌 핵심 AI 모델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AI 모델과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추가해 고객들의 AI 에이전트 체험 편의를 높이고 사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연이은 합종연횡은 소비자 경험 혁신과 함께 자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전략 투자함으로써 첨단 기술 확보의 길을 열어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해 최신 트렌드에 처치지 않겠다는 실속있는 계산이다.

이재신 SK텔레콤 AI성장전략본부장은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으로 SK텔레콤의 AI 사용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해진 "방향 바꾸며 과감하게... AI의료 투자에 진심"

(네이버 창업자)

서울대병원 포럼서 첫 공개 행보
의료 특화 LLM 개발 성과 공유
"똑똑한 사람에 투자해야 기회 온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가 첫 공개 행보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해진 GIO는 "네이버는 의료 인공지능(AI) 투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에서 특별 강연을 맡았다.

네이버와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와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네이버 이해진 GIO(앞줄 왼쪽 네 번째),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네이버 최수연 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AI 기반 의료 혁신'을 주제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기반 초고속 정밀 항체 발굴 플랫폼 기술 등을 논의했으며, '혁신기술을 통한 미래 의료의 새 지평'을 주제로 신개념 심장내 무선 송수신 보조기기, AI 통합형 로봇시스템 등 기술 토론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3년간 3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단일 연구 지원금 기부액 중 가장 큰 액수다. 네이버는 '네이버 디지털 바이오 도전적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의학 연구를 지원했다. 이달 기

준 633건의 연구과제 중 44건이 선정됐으며 지원에 힘입어 서울대병원은 최근 국내 병원 최초로 한국형 의료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이해진 GIO는 "AI라는 엄청난 물결에 과감하게 올라타야 한다. 똑똑한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방향과 전략을 바꾸면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특화된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타겟을 좁혀서 만든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D2SF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위메이드플레이

신임 대표에 이상준 선임



위메이드플레이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위메이드타워에서 진행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에 이상준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이상준 대표는 2003년 NHN을 시작으로 NHN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NHN블랙픽 대표를 거쳐 2022년부터 메타보라 대표로 재직해 온 게임, IT분야 전문 기업인이다.

회사 측은 플레이링스를 포함해 급변해왔던 IT산업에서 20여년 간 역량을 보인 이상준 대표가 새로운 성장, 변화를 이끌 검증된 책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텐센트, AI '훈위안 T1' 전격 공개

韓 기업, 中 시장 진출 변수에 긴장

T1 모델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R1 모델보다 우수해

중국 기술 대기업 텐센트가 인공지능(AI) 추론 모델 '훈위안 T1'을 출시했다.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게임 및 IT 기업들은 텐센트의 '훈위안 T1'이 현지 진출에 영향을 미칠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텐센트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훈위안 T1 모델을 공개했다.

텐센트에 따르면 훈위안 T1 모델은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 모델보다 더 빠른 응답시간과 확장된

텍스트 문서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콘텐츠 조직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텍스트를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각(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텐센트는 AI 분야에서 후발 주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AI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이어왔다.

실제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는 AI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클라우드 등 AI 관련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U+, 외국인도 클릭 한 번에 셀프 개통

'알닷' 통해 비대면 5분 개통 지원

LG유플러스가 외국인도 빠르게 알뜰폰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는 '외국인 셀프개통'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셀프개통은 외국인 고객이 상담사와의 통화 없이 요금제 큐레이션을 활용해 손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LG유플러스의 공식 알뜰폰 온라인몰 '알닷(알뜰폰닷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고객이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 알뜰폰 업무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상담사와 통화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개통에 불편



LG유플러스가 '외국인 셀프개통' 서비스를 알뜰폰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모델이 '알닷'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을 겪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알닷은 U+알뜰폰 요금제 비교부터 가입,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5분만에 온라인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엔터

'갓블' 스핀오프 출격
신작 웹소설 '더 블랙'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글로벌 액션 IP(지식재산권) '갓 오브 블랙필드'의 세계관을 잇는 스핀오프 웹소설이 베일을 벗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지에 무장작가의 신작 웹소설 '더 블랙'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장작가의 '갓 오브 블랙필드'는 뛰어난 전술로 프랑스 외인부대 전설로 불리던 주인공 '강찬'이 동료의 배신으로 전사한 뒤 동명이인인 19살 고등학생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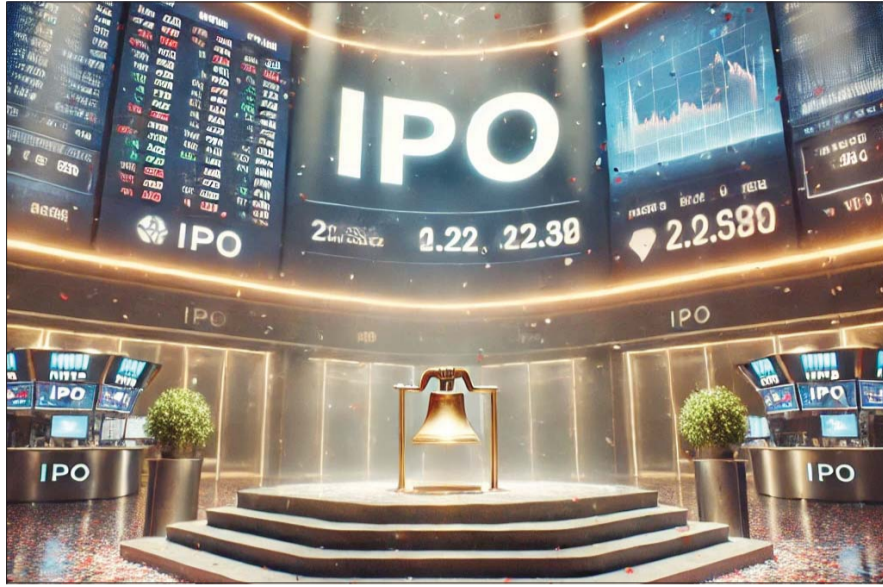
외국인·개미 ‘사자’, 새내기주도 성공적… 국내증시 ‘봄바람’

KRX, 한텍 207%·대진첨단소재 56% 이달 상장 8개 중 6개 공모가 웃돌아 올해 신용거래용자 잔고 2.5조 늘고 외국인 8개월만에 순매수세 돌아서

국내 증시에 봄이 찾아 올 지 관심이 쏠린다. 새내기주는 상장후 공모가를 웃도는 성적을 내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 규모도 18조원으로 뛰어올랐다. 탄핵정국에 위축됐던 외국인 매수세도 살아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장한 8개 종목 가운데 6개 공모가를 웃돌았다.

한텍(207.41%), 대진첨단소재(56.11%), 티엑스알로보틱스(37.70%), 엠디바이스(15.93%) 등은 상장 이후 15~207%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상반기 IPO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서울보증보험 역시 상장 첫날 공모가



Chat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이미지.

대비 23% 오른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 기준 3만59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약 38%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올해들어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코

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총 18조 284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음을 뜻한다. 국내 증시가 탄핵정국에 휩싸였던 지난 12월 말엔 15조원대로 급감한 바 있다. 외국인은 8개월만에 순매수세로 돌

아섰다. 3월 외국인 순매수액은 20억원으로 많지 않지만,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달 31일에는 공모도가 재개된다. 공모도는 외국인 국내 증시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넘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업가치보다) 고평가는 공모도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다. 공매도 재개 이전에는 기업의 미래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고평가인지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의 본격 회복 여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판도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달 2일 부과될 상호 관세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 상호 관세 부과가 압박하면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기에 공매도 재개(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보고서 발표(4월 1일), 상호 관세 부과(4월 2일)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반도체 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5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라며 “평균 수준(10.2배)만 회복해도 코스피는 29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는 반도체, 2차전지, 은행, 보험,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패시브 TDF ETF, 노후준비 윈티켓 솔루션” ‘30억 자사주 매수’ 한화에어로, 7.5%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TDF2045 ETF’ 상장 간담회 ‘자산배분곡선’ 안전자산 비중 점차 확대

“TIGER TDF2045 ETF”는 투명하고 저비용이며, 가장 직관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 윈티켓 솔루션(one-ticket solution)입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대표 부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TIGER TDF2045 ETF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오는 25일 해당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TDF ETF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지수 S&P500을 기초지수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패시브형 TDF ETF로,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 패스·Glide Path)을 적용해 은퇴 시점까지 S&P500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간다.

윤병호 미래에셋운용 전략ETF운용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이 24일 TIGER TDF2045 ETF와 관련해 투자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본부장은 “ETF 시장이 점차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TIGER TDF2045는 ETF의 본질에 충실한 직관적인 은퇴 투자 솔루션”이라며 “S&P500 수익률과 환율만 알면 누구나 자신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고관여(투자 구조에 대해 적극 분석·판단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TDF ETF가 글로벌 자산에 액티

브하게 투자해 예측이 어려웠던 반면, 해당 상품은 S&P500과 국내 단기채 중심의 고정 포트폴리오로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다. 상장일 기준 79%를 S&P500, 21%를 국내 단기채에 투자하며 2045년까지 매년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운용 보수는 총 0.19%로, 국내 TDF ETF 평균(0.75%)보다 낮다. S&P500은 직접 운용해 별도 보수가 없고, 채권은 초기엔 ETF로 운용하되 규모가 커질 경우 직접 운용으로 전환해 보수를 줄일 계획이다.

TIGER TDF2045 ETF는 적격 TDF로 분류돼 퇴직연금 계좌에 100% 편입이 가능하다. ‘TIGER 미국S&P500 ETF’와 병행 투자 시 연금 계좌 내에서 S&P500에 최대 93%까지 투자할 수 있다. 김 부사장은 “기존 안전자산을 TDF2045로 전환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위험자산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동관 대표이사 “미래성장에 확신 주주와 함께 기업가치 향상 의지 반영”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사진)가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7.48% 오른 67만5000원에 마감했다.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이 오히려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략부문 대표이사는 이 회사 주식 약 30억원어치를 매수하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자사주 매입의 배경”이라며 “주주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은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각각 약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매입 금액은 지난해 연봉에 해당한다.

김 부회장과 손 대표, 안 사장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다.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매수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불안을 잠재웠다는 평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한 자금은 해외 방안 1조6000억원, 국내 방안 9000억원, 해외 조선 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 개발 3000억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화 측은 “유럽의 독자 재무장과 미국의 해양방산·조선해양 산업 복원의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22.5억 ‘고속 성장’

지난해 말 대비 약 5.9% 증가

삼성증권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합산한 총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총 연금 잔고는 22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말(21조3000억원) 대비 약 5.9% 증가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 기간 각

각 5.1%, 9.8% 늘었다. 퇴직연금 전체(DB+DC+IRP) 잔고 기준으로는 5.6% 증가해, 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인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디플트옵션 수익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위험군 1개월 수익률에서 ‘삼성증권 디플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가 1위를 차지했다. 저위험군 상품에서도 ‘삼성증권 디플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가 1년 수익률 기준 1위에 올랐다.

삼성증권 연금잔고의 성장을 견인한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다양한 연금 서비스가 꼽힌다. 삼성증권은 2021년 퇴직연금 업계 최초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선보이며 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 ‘3분 연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 없고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확인 시간을 제외하면 3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은 공식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팜(mPOP)’을 통해 연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 경영진, 자사주 6.7만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약 4.4억 규모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이 약 4억 4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6만 6846주를 매입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섭 부회장은 17일과 18일 자사 보통주와 우선주(2우B)를 각 2만 주씩 장내 매수했다. 총 취득 금액은 약 2억 8000만원이다. 전경남 사장은 보통주 6846주와 우선주(2우B) 2만주를 매수해 약 1억 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



김미섭 부회장



전경남 사장

한 취지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회사의 핵심 경영진은 주가 부양 및 중장기 성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허선호 부회장이 1억 4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2만주를 매수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美-EU 그린성장 정책 엇박자

“韓, 기업부담 줄이며 성장형 탄소중립 전환을”

무협 그린성장전략 변화 시사점

美, 화석연료 중심 반 그린 정책
EU, 규제완화로 기업경쟁력 도모
양국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초점
한국도 지속가능 성장전략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유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간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

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이나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검역본부-몽골 MULS연구원
공동예찰·조사 등
AI 국제연구 협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제공동연구기관인 몽골생명과학대학(MULS) 소속 연구팀을 초청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국제 연구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AI는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고, 몽골은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이다.

검역본부는 겨울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AI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사전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몽골 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예찰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해 왔다. 몽골생명과학대학 현지 연구팀은 매년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전 5월에서 10월 사이 몽골 철새 번식지에서 AI 바이러스를 예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동남부 강가 호수에서 2024년 10월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했다. 국내 유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검출해 국내 유입원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를 통해 몽골 최신 AI 발생 정보 및 예찰 검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계획과 2025년 몽골 현지 야생조류 예찰 전략을 협의했다. 검역본부는 또 AI 정밀 진단 기술교육도 진행해 현지 연구팀의 진단 역량을 더욱 높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카카오엔터, 유명 SNS 동원해 8년간 음원 ‘뒷광고’

공정위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9000만원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 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

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뽀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온라인가입 회원권 매장만 탈퇴 가능? 코스트코코리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공정위 경고에 시스템 전면개선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케팅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보호무역 심화에도 外人투자 인센 확대”

안덕근,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투자 촉진정책 적극 추진 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한외국상



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를 계기로 워너에너지,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평택·당진항 일원 배후단지개발 첫 삽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이달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 및 공공용 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득도지의 분양가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이달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시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진다... 부산, '생애말기안심돌봄' 출범

가사·정서·임종 간호 등 통합 돌봄 무연고자는 공영장례까지 연계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지원

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전한 존엄사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내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돌봄 제도에는 생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를 연계해 생애 말기 환자에게 가사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완성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은 ▲[가사 활동] 취사, 식사 준비, 청소 ▲[일상 생활] 관공서 동행 ▲[건강 유지] 복약지도, 운동 지원 ▲[정서 지원] 우



동행매니저를 통한 차량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울감 예방 지원 ▲[신체 청결] 세면, 구강관리 등이다.

임종간호 서비스로는 ▲대상자 통증 및 증상 관리 ▲정서적 돌봄 ▲의료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를 연계해 고인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 말기 환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 7800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 이하 경우 시에서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촘촘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해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

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도 추가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난해에 부산, 함께돌봄 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서비스에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난해 총 1만 446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형 의료·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사회 관계망 확충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모집

김해시는 '2025년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 일 기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금 1000만원 지원 ▲산업 재해 예방 우수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 개선 지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 환경과 시설 개선, 안전 보건 관련 장비 구입, 산업 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경산시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실시

경북 경산시는 치매 발병률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와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 등으로 치매 검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진행 지연 등 다양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산(경북)=김준환 기자

사천시

방문의해 맞이 숙박대전 실시

전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이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경남 사천시는 2025 사천 방문의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OTA(Online Travel Agency)인 야놀자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으로 '사천에 또와! 사천 숙박대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에 또와! 사천 숙박대전은 야놀자 플랫폼과 여기어때에 입점한 사천시 관내 숙박업소 136개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발급해 주는 이벤트 행사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칠곡군

日 니가타현 쌀 산업 벤치마킹

칠곡군이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꾸려 일본 니가타현으로 벤치마킹에 나선다.

칠곡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재욱 군수와 이상승 군의장을 비롯해 농협, 농민, 외식업체와 유통 전문가, 연구기관 교수, 담당 공무원 등 총 23명의 연수단을 꾸려 니가타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반적인 공무원 해외 견학과 달리 농업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쌀 산업 전 과정을 집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칠곡(경북)=김준환 기자 kih9@

창원, AI 의료기기 선도도시 노린다

국내 최대규모 KIMES 2025 참가 의료 바이오 상담 100건 '성공'

창원시는 의료 바이오 핵심 기술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COEX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KIMES 2025에 참가했다.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 기술 보유 기업 및 국내외 의료기기 바이어 등과 100회 이상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는 ▲원천 기술 보유 기업 대상 창원시 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Target 설명회 8회, ▲사업화 근접 의료 바이오 핵심 기술 컨소시엄 상담 27회, ▲국내외 의료기기 바이어 상담 61회,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의향서 13건 접수 등 성과를 달성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국내외 의료 바이오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2027년까지 이어지는 창원시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졌다.

창원의 적극적인 의료 산업 육성



창원시, 'KIMES 2025'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개최 모습.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등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반산업을 선도하는 창원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IMES 2025에서 창원시 첨단의료기기산업 지원 정책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돼 기쁘다"며 "특히 100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우수한 기업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창원시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 지구 85만 바퀴 탄소 줄인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 33건 지원

전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산주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 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 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 원, 모니터링 시 1400만 원, 검증 시 500만 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예상 총흡수량은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승용차 한 대가 약 3조4000km(지구 85만 바퀴)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0억400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속도'

내달 1~3일 'SME Week' 개최

포항시가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중소기업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체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속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자 AI 기술 중심의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일에는 POSTECH 컴퓨터공학과 최승문 교수가 로보틱스와 햅틱스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같은 대학 유환조 교수는 LLM(Large La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장.

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과 제조 AI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2일에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혁신과 디지털 트윈, SNS 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편집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봄꽃·문화유산 어우러진 경주로 오세요"

내달 4~6일 '대릉원돌담길 축제' 개최

국내 대표 벚꽃 명소인 경주에서 '2025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가 개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린다.

돌담길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체험이 가득해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APEC 정상회의 개최 해를 맞아 다국적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한·중·일·영 언어로 번역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 먹거리 주문 시간을 단축하고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호 인력을 대폭 확대해 인파 밀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축제 운영에 앞장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벚꽃거리예술로 △벚꽃라이프쇼 △드로 위 놀이터 △친환경 '함께해봄' (친환경 체험) △돌담길 레스토랑&마켓 △친환경 뽑기 등이 펼쳐진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자사업 강화·사업 다각화... 치킨 프랜차이즈, 마케팅 사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부담 커져 브랜드별 포장할인·쿠폰지급 등 이벤트 앞세워 자사업 이용 유도
수제맥주·막거리 판매, 외연 넓히고 태국·미국 진출 등 글로벌 진출도



교촌치킨이 자사업을 통해 3월 'KING 클럽 보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왼쪽), 교촌치킨 모델 배우 변우석. /교촌에프앤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가맹점주들과의 차액 가맹금 소송, 고물가 등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 다각화와 자사업 중심 마케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촌치킨, bhc치킨, BBQ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배달업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 브랜드는 포장 할인, 멤버십 등급제, 신메뉴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자사업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소비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포장 주문 건에 대해서

도 중개수수료 적용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교촌치킨은 자사업 멤버십을 세분화해 포장 주문 시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정기 이용자에게는 제품 증정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고 있다. bhc치킨은 지난달 자사업에 회원제를 도입하고, 등급별 쿠폰과 스포츠 경기 사전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BBQ

는 신메뉴 할인, 금요일 특가 이벤트, 황금알 치즈볼 증정 등 공격적인 자사업 프로모션을 이어가며 충성 고객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자사업 중심 전략은 가맹점 수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BBQ의 자사업 회원 수는 2020년 30만명에서 지난해 400만명으로 급증했고, 교촌치킨 업 주문 비중도 13%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자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소비자 인식 한계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보통 본사와 가맹점이 이벤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할인 경쟁이 지속될 경우 가맹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사업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배달업의 구독제를 통해 무료 배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사업의 매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사업 마케팅이 곧장 수익 증대로 이어지진 어렵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기존 치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신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종이포장재 제조회사 '케이엔엘팩'을 통해 친환경 패키징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제맥주 '문베어', 프리미엄 막걸리, 아마존 K-소스 판매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bhc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포

함한 외식 브랜드 운영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태국·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BBQ는 일식주점 '토리메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피터펫' 등으로 외식·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진입했으며,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BBQ는 국내 2100여개, 해외 약 700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처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꾀하는 배경에는 배달업 수수료 부담, 내수 시장 포화 등 기존 치킨 사업의 리스크를 상쇄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치킨 3사 모두 가맹점주와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있는 만큼,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는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된 국내 치킨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본사들은 브랜드 외연 확대와 자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을 병행하며 다층적인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영화관에서 켈리 마시며 프로야구 즐겨요”

하이트진로 켈리-CGV 협업 주요 60여개 극장서 켈리세트 판매



켈리 세트 메뉴. /하이트진로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만났다.

하이트진로는 2025 KBO(한국 프로야구) 리그 개막을 맞아 더블 임팩트라거 '켈리(Kelly)'와 CGV가 협업을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 극장을 찾는 국내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CGV는 최근 2025~2026시즌 KBO 리그 경기를 극장 단독 생중계 및 프로모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맞춰 극장 야구 중계만의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켈리를 즐길 수 있는 KBO리그 극장 생중계 특화 상품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CGV와 연계하여 전국 CGV 주요 60여개 극장 내 켈리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 세트 메뉴는 야구장 콘셉트의 패키지가 적용된 1인 메뉴, 2인 메뉴로 구성되며 취식 편리성과 재미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 또한 CGV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극장인 CGV인천에 셀프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켈리 브랜드존을 운영한다. 특히 야구 특화 상영관으로 새롭게 선보인 CGV인천 SC REENX관에는 실제 야구장을 떠올리게 하는 켈리 브랜드가 적용된 좌석으

로 구성해 현장감을 살렸다. SCREEN X관은 세계 최초로 좌, 우 벽면까지 스크린이 3면으로 확장된 상영관이다.

켈리 세트 메뉴 등 KBO리그 극장 생중계 특화 상품은 개막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판매 중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2025 KBO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팬들이 극장에서 켈리를 즐길 수 있도록 CGV와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24년부터 전국 CGV 극장 내 켈리를 런칭해 맥주 세트 판매 및 SNS 콘텐츠를 운영하며 영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N서울타워, 29·30일 '봄 남산 와인페어'

12개 수입사서 100여종 시음 행사

운 행사를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봄을 맞아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2025 봄 남산 와인페어'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N서울타워는 매년 봄마다 '블러썸 타워(Blossom Tower)'를 콘셉트로 벚꽃 페스티벌을 개최해왔다. 올해도 싱그러운 봄 햇살이 가득한 핑크빛 남산에서 벚꽃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

이번 와인페어는 오는 3월 29일, 30일 주말 양일간 N서울타워 광장에서 진행된다. 12개 와인 수입사가 준비한 100여종의 다양한 유명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으며, 200여종의 와인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와인장터도 운영된다.

와인페어 입장권 구매 시 와인 시음을 위한 리틀 와인 글라스와 칠링백, 푸드 이용권 2매가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힐라홀딩스, 3년간 최대 5000억 주주환원

기업설명회서 새 환원정책 발표

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이어온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바탕으로,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힐라홀딩스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5000억원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2000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년간 주주환원 규모는 최대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힐라홀딩스는 지난 21일 열린 기업설

앞서 힐라홀딩스는 지난 2022년, 오는 2026년까지 최대 6000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연결지배주주순이익 대비 환원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50주년 특별展

내달 30일 개막... 작가 5인 참여

가나의 헤리티지를 돌아보고, 초콜릿을 문화로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라플렉스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 ▲박선기 ▲김선우 등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초콜릿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외에도 가나 초콜릿의 역사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지난 50년간 국민의 곁에서 행복한 순간을 함께한 가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지그재그 봄 신상 95% '직작팍'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내달 7일까지 15일간 봄 신상품 및 인기 상품을 최대 9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직작팍'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작팍은 지그재그가 매 시즌 진행해 온 대규모 전자 할인 행사 '직작세일'을 리브랜딩한 것으로, 지그재그와 '직작'을 결합해 만든 명칭이다. 기존 직작세일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보다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약 400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컬리, 봄 맛이 콘셉트 '원더컬리' 행사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이달 31일까지 신규 할인 행사 '원더컬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원더컬리는 컬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맞춤형 월 정기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3월을 맞아 봄맞이 콘셉트로 진행된다.

컬리에 따르면, 이번 신규 행사에는

인기 상품 특가 혜택인 '원더픽'을 포함해 100% 당첨 쿠폰, 최대 77% 할인 등 혜택을 강화했다.

원더픽은 고객별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특가 혜택이다. 구매 주기 등에 따라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 준다.

/안재선 기자

에스티팜, 올리고핵산치료제 등 신약 CDMO 사업 본격화

(위탁생산개발)

사업 체질전환 통해 신성장 모색
완제의약품 제조사 파트너십 강화
이달 3건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에스티팜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이 제네릭 원료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에서 신약 원료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올해 3월 3건의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했다.

에스티팜이 지난 2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에스티팜은 '2025년 첫 번째 신규 프로젝트'로 이달 6일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1523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만성B형간염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은 이달 10일에도 유럽 글

로벌 제약사와 1467만달러(약 213억원) 수준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동맥경화증에 쓰이는 것으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7년 상반기에는 상업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에스티팜은 이달 13일 유럽에서 286만스위스프랑(약 47억원),

미국에서 488만달러(약 71억원) 총 118억원 규모의 원료의약품 계약을 수주했다. 적응증은 각각 근육이상증과 신장질환이다. 신장질환 치료제의 경우, 오는 2027년 신약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올리고동을 생산 기지로 해 신규 수주와 상업화 공급 물량 증가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은 앞서 2023년 하반기 제2올리고동 착공을 시작해 올해 4분기부터 가동 예정이다. 제2올리고동이 완공되면 에스티팜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능력을 연간 14mol(최대 7t)까지 확보하게 된다. 생산 역량이 현재 6.4mol 대비 두 배 이상 커진다.

에스티팜은 생산 시설 외에 플랫폼 기술 측면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스티팜은 지난 18일 일본에서 mRNA 플랫폼 핵심 기술 '스마트캡' 특허를 완료했다. 에스티팜이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 말단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mRNA 합성에 적용된다. 핵산 기반 치료제, 백신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

다. 에스티팜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각국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자체 특허 기술로 mRNA 약물 전달 기술 '에스티엘엔피'도 보유하고 있다. mRNA 약물을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올해 매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은 2738억원, 영업이익은 27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3.9%, 17% 감소했다. 이중 신약 원료의약품 매출은 1841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다.

에스티팜 측은 "에스티팜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신약 원료의약품 CDMO 부문으로 완제의약품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출 성장과 직결된다"며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는 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 인 젤 마스크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에서 '레티놀 세럼 인 젤 마스크'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브랜드 대표 제품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한 병을 젤 마스크 한 장에 담은 고기능성 제품이다. 아이오페가 독자 개발한 '레티놀 RX' 성분이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한 병과 동일하게 높은 함량으로 함유됐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1회 사용만으로 사용 전에 비해 피부 탄력 35%, 피부결 33%, 주름 23%, 치밀도 14%가 개선되는 것이 입증됐다. 모공 수와 면적은 각각 21%, 32% 감소하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 인 젤 마스크'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 공개되고 4월부터 전국 아리따움, 마트 매장, CJ 올리브영,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여진다.

/이청하 기자

온코닉, '지큐보정' 기술이전 순항... "매출·수익성 개선"

리브존제약 마일스톤 150만弗 청구
21개국 기술수출... 품목허가 절차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 /온코닉테라퓨틱스

제일약품은 신약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중국 리브존제약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 기술이전 마일스톤 150만달러(약 21억8700만원)를 청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마일스톤 청구는 자큐보정 양산기술(화학·제조·품질관리, CMC) 이전 작업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300만달러(약 43억 7400만원)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글로벌 신약 자큐보정에 대한 중국 내 후속 개발이 지속 추진되면서 예정된 마일

스톤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산기술 이전까지 최종 완료했고, 중국 내 자큐보정 품목허가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중국 리브존제약과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내 자큐보정 개발, 허가,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500만달러(약 200억원)를 포함해 총 1억2750만달러(약 165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기술이전 계약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체결했는데, 자큐보정 임상이 3상으로 진입하면서 자큐보정은 K신약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 리브존제약은 자큐보정 경구형 임상 3상, 주사제형 임상 1상 등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차세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인 '자큐보정'은

지난 2024년 4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발매됐다. 올해 1월에는 위궤양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한 국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큐보정 임상 성과와 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매출과 수익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을 이미 해외 21개국에 기술수출해 왔다. 멕시코·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 허가자료를 바탕으로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휴젤

리얼 히알루로닉 선크림

글로벌토탈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주에서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선크림(사진)'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에 고보습 앰플 성분을 더했다. 웰라주 대표 스킨케어 제품인 속건조 개선 앰플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과 동일한 고순도 히알루론산, 12층 겹보습 특허 성분인 HA아미노솜 등을 함유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해당 제품 사용 후 1분 만에 피부 온도를 -4.3℃ 감소하는 등 일시적 냉각 효과가 입증됐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라퀼리아' 지분 10.61% 인수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개발 추진

HK이노엔은 24일 신약연구개발 기업 '라퀼리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라퀼리아의 1대 주주가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HK이노엔은 라퀼리아 주식 2,592,100주를 취득해 10.61%의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향후 '케이캡'의 일본 시장 진출을 비롯해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라퀼리아는 일본 화이자 제약 출신 연구진이 2008년 설립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2010년 HK이노엔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물질 기술을 이

전한 곳이다. 소화기 질환, 통증, 항암 분야 항체, 유전자 및 단백질 의약품, 저분자 의약품 등 총 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HK이노엔 광달원 대표는 "라퀼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양사가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케이캡의 일본 시장 진출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라퀼리아가 개발한 물질들은 기술이전을 통해 HK이노엔의 '케이캡' (위식도역류질환신약)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등 총 4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코스트코 입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선호의약품 등재... 현지 처방 가속화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미국 초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Costco)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스테키마를 미국에 출시한 후 약 2주 만에 거둔 성과다.

셀트리온은 이달 22일(현지 시간) 미국 내 3위 규모의 초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계열사 '코스트코 헬스 솔루션스' (Costco Health Solutions)와 스테키마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 내 약국에서 PBM 가입자 및 코스트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테키마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셀트리온 '스테키마'

이번 계약에서 스테키마는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돼 조기 시장 선점을 이끌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현재 최종 계약 단계에 접어들어 3대 PBM 중 한 곳을 비롯한 다른 PBM들과의 등재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리바로젯' 병 포장 제품

JW중외제약이 이상지질혈증 복합 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의 병 포장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포장 선택의 폭을 넓힌다.

JW중외제약은 기존 개별 압박 포장(PTP) 포장으로만 공급하던 리바로젯에 대해 이달부터 100정 병 포장 형태를 추가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치료제로, 스타틴 계열인 피타바스타틴과 콜레스테롤 흡수억제제인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글로벌 최초의 복합 개량신약이다.

이번 병 포장은 환자가 약을 보다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약국의 조제 과정을 효율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을 넘어 그다음 세대까지 지키는 보험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언젠가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그 마음 전합니다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삼성생명)가 관리 운영하여 생전에 지정한 가족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상품

삼성패밀리오피스 02-2051-4030 서울FP센터 02-3706-3916 강남FP센터 02-3451-1700 경인FP센터 032-516-3900 강원FP센터 031-226-1529
충청FP센터 042-484-0821 대구FP센터 053-250-5150 호남FP센터 062-384-0592 부산FP센터 051-630-6620

*투자자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신탁계약은 운용자산별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집행보수 0.5%, 후취보수 연 0.3%가 발생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510호(2024.11.12 ~ 2025.11.11)



동원홈푸드-서산시, 농산물 활성화 MOU

동원홈푸드가 '농가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와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동원홈푸드는 서산시에서 감자, 양파 등 최대 2000t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대표(오른쪽)와 이완섭 서산시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홈푸드



JB금융-CIBI, '韓-필리핀 신용정보 연계' 업무협약

JB금융지주는 필리핀 대표 신용정보기관 CIBI Information Inc. (이하 CIBI), 국내 최대 신용정보기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한국-필리핀 신용정보 연계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왼쪽부터), 마리아 그라시아 피아 아레안노 CIBI대표, 김종윤 나이스평가정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B금융



CJ도너스캠프,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지원

CJ도너스캠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오른쪽)과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도너스캠프



오비맥주, 광주 생산공장 인근 하천 정화활동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지난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 생산공장 인근 하천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공장 임직원 30여명이 영산강과 공장 외곽에서 플로깅을 했으며, ▲에너지 절약 공모전 ▲환경실천 다짐 서약 ▲협력업체 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KCC-서초구, '2025년 반딧불 사업' 협약식

KCC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와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KCC는 올해 사업에 1억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할 계획이다. KCC 백승근 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CC

현대차, 레이싱팀 지속 후원... 모터스포츠 산업 키운다

아마추어 동호회 '팀 HMC' 후원 내달 '현대 N 페스티벌' 출전 예정

현대자동차가 국내 모터스포츠 육성 및 저변 확대에 힘을 신는다. 현대차는 아마추어 동호회 레이싱팀 '팀(Team) HMC(Hyundai Motor Club)' 후원을 9년 연속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팀 HMC는 현대차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인 '현대 모터 클럽' 회원들로 구성됐다. 2017년 창단 이후 KS F 아반떼컵, 현대 N 페스티벌 등에 꾸준히 참가했다.

올해 팀 HMC는 9년 연속 드라이버로 참가하는 방송인 양상국 씨와



방송인 양상국(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인플루언서 플로리안, 현대차 국내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김재형 팀장, 현대차 국내상품마케팅사업부장 조원상 상무, 현대차 국내마케팅실장 이철민 상무가 2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독일

인 플로리안 씨를 포함해 총 5명의 드라이버로 이뤄졌다.

이들은 현대차 '아반떼 N'을 타고 오는 4월부터 열리는 '2025 현대 N 페스티벌'에 출전한다. 현대차는 팀 HMC 선수들을 위해 ▲드라이빙 수트 및 팀복 ▲팀 브랜딩 및 차량 랩핑 ▲차량 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 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현대차의 신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터스포츠 문화와 N 브랜드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후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효성, 황윤언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진, '어스아워' 글로벌 캠페인 동참

스판덱스 사업분야 핵심 역할

효성이 황윤언(사진) 전략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황 전략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해 40여 년간 섬유사업 및 전략 부문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국내 기업 최초의 스판덱스 섬유 개발에 참여한 이후, 생산 및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황 대표이사는 ▲1999년 스판덱스 생산팀장을 맡은 데 이어, ▲2000년 구미공장장, ▲2001년 중국 가흥법인 총경리로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었다. ▲이후 2005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겸 광동법인 총경리를 역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도했으며, ▲2010년부터는 스판덱스 PPU장을 맡아 효성의 스판덱스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에는 올해의 효성인상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전략본부장을 맡아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경영을 총괄하며 효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힘써 왔다.

효성은 황윤언 대표이사가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사업장 소등...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한진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글로벌 환경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

한진은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2025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해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부터 전국 주요 사업장의 조명을 한 시간 동안 일제히 소등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 세계가 동시 소등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 동서울 허브 터미널, 인천공항 GDC, 서울 중구 한진빌딩(본관·신관) 등 주요 거점이 참여했으며, 한 시간 소등을 통해 약 1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



한진은 '어스아워' 글로벌 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22일 밤 서울 명동 한진 사옥에 불이 꺼져 있다. /한진

로 임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5%

현대트랜시스가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트랜시스는 2024년 평가에서 노동·인권과 지속가능한 조달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 5% 기업에만 부여하는 골드 등급을 2년 연속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이다. 세계 170여 개국 1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 에코바디스 첫 평가에서 실버 등급을 기록한 현대트랜시스

는 2023년부터 각 평가 부문의 추진 현황과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 높은 골드 등급에 올랐다.

또 현대트랜시스는 2021년 '204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64%, 204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외 사업장에 '온사이트 PPA(On-Site PPA)'를 통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고 있으며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동기 현대트랜시스 기획실장은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현대트랜시스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현대트랜시스는 전 사업분야에서 공급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이은주 총장, IAUP 부회장 선출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은주 총장(사진)이 세계대학총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이하 IAUP) 부회장에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1964년 설립된 IAUP는 전 세계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강화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학의 최고 경영자인 총장들



이 모인 국제 협회이다.

현재 쉐넌(Dr. Shawn Chen) 중국 시아스 대학(Sias University) 총장이 회장으로 있다. 이은주 총장은 지난 2024년 IAUP 집행이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in@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소통지원관 정태경

부음

▲송재성(전 오토플러스 대표·전 디아지오코리아 홍보본부장)씨 별세, 이혜진씨 남편상, 송찬호·윤호씨 부친상=

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6일. 02-2258-5919

▲성영길씨 별세, 성기찬(서산시 부춘동장)씨 부친상=24일,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국화1호(2층), 발인 26일. 041-689-7444

▲정종철씨 별세, 서인석(프로야구 LG 트윈스 1군 매니저)씨 외조부상=24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장례식장 VIP, 발인 26일. 031-641-4440

현실은 동굴의 시뮬레이션?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플라톤이 쓴 '국가'에 등장하는 철학 우화로 '동굴' 이야기가 있다.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두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을 현실 혹은 실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림자만이 자신이 아는 전부라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것이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연히 혹은 뭔가에 끌려간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과 태양을 보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는 '메트릭스'의 네오처럼 실재하는 현실 속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동굴 안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 하지만 동굴 속의 죄수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플라톤은 동굴 속의 죄수들에게 실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씩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 한다. 플라톤은 이것을 철학적 훈련 혹은 이성적인 사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실재가 아닌 허상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실재인 혹은 현실인 그림자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거꾸로 돌려보면 진짜는-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라고 했다- 다른 곳에 있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그것의 허상인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의 허망한 그림자를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가자고 한 듯 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거울 대칭처럼 현대의 과학 기술이 이제 진짜 허상의 세계로 인간을 이끌고 있다.

현실 자체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혹은 현실에 가상을 입히거나 아예 다른 현실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만드는 기술을 합쳐서 XR라고 한다. XR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상현실(VR), 현실 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증강현실(AR), 증강 현실에서 가상의 존재나 사물이 현실에 실재하는 어떤 것과 기계적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혼합현실(MR)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시뮬레이션하여 전자로 구성되는 혹은 정보로 구성되는 메타우주를 인간이 만들고 이곳으로 인간이 이주하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실제 지금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다. 위의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기원 전 한 철학자가 말한 철학적 담론 혹은 생각이 현대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것은 현실이며 이 불안족스럽고 뭔가 무너져 가는-엔트로피라고도 한

다- 이우주를 벗어나 영원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원하는 데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진리의 세계인 이데아가 가상현실이라는 기술로 바뀌어 그곳으로 인간이 떠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가상현실은 전자와 정보로 구성된 거울에 비친 평면의 세계이며 경험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면서 경험으로 실재하는 그런 수학의 허수 같은 공간, 플라톤이 말한 동굴인 듯한 완벽한 진리를 가지는 이데아의 세계인 것이다. 플라톤의 욕망이 이제 실제로 2000년이란 시간을 건너 실현되는 것인가.

장자의 호접몽이란 이야기는 독자는 잘 알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중학교 때 읽었던 고전인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소설 속 주인공 성진이 현실인 다리에서 만난 팔선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부귀영화의 삶을 사는 꿈을 꾸는 이야기 속 현실이 필자에겐 마치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필자의 얼굴은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며 진짜 현실은 거울을 보는 필자라는 믿음을 되돌려 실재는 거울 평면에 있는 가짜인 모습이 사실은 실재 나이며 실재라고 믿는 거울에 비춰지는 필자는 오히려 가짜인 듯한 느낌 때문이 아닐까.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위기는 왜 아래부터 파고드는가



기지수첩
안재선
(유통&라이프부)

위기의 칼끝은 항상 아래부터 파고든다. 약육강식의 본능을 떠올려 봐도, 약한 고리 이론을 꺼내 봐도 그 맥은 같다. 언제나 위기 앞에서는 약한 곳부터 무너졌다. 홈플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 사태로 시장에 줄도산의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기업 납품업체 중에서도 대리점주,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 입점업체, 마트 점포 노동자들.

이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한다. 홈플러스가 밀린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지만, 갚으면 그만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금 지급 지연 자체에서 이미 이들은 생계의 부담을 느낀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갚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 이자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회가 이들의 불안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회복 탄력성의 차이에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 이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여러 대의 슈퍼카 보유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김 부회장 자택 주차장에는 4억~6억 가량하는 고가의 페라리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아무리 유통업 전

반이 어렵다 한들, 회사가 망한다 한들, 위기를 감내해 내는 밀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마련이었다.

홈플러스 사태만이 아니다. 거시적 위기는 늘 이들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내수 시장 침체, 소비 둔화,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 등의 외부적 위험 요인은 곧바로 마트업계의 인력 효율화로 이어졌다. 일례로 롯데마트 제타점은 키오스크로 전면 탈바꿈하며 인력을 최대한 감축했으며, 홈플러스 잠실점 역시 5개의 일반 결제 레일 중 3개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가 이들을 방관한다면, 언젠가 그 균열은 모두를 향해 무너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기의 무게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미래를 위해 주변 정리를. 48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6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72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 일을 미루지 말고 마무리. 84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소** 3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돈 자랑 마라. 49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61년생 좋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린다. 73년생 내가 좋아해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85년생 위기가 있지만 귀인이 도와준다.
- 호랑이** 38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50년생 기회가 왔어도 실력 부족으로 놓친다. 62년생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한다. 74년생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입단속 해야 하는데 86년생 귀인을 만났어도 장기투자는 뒤로 미루자.
- 토끼** 39년생 이상보다는 현실을 보고 주관을 가지자. 51년생 힘들어도 추진해나간다. 63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5년생 자신중식은 시기적으로 지금부터이다. 87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 말** 40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52년생 금전과 사랑의 운이 따르는 하루. 64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고 보고 진행. 76년생 시운에 맞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라. 88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갈 길이 보인다.
- 뱀** 41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53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된다. 65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7년생 남서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행운이 있다. 89년생 꽃피고 새가 우니 이제 행동할 때.
- 말** 42년생 회사 재무를 다시 살펴보도록. 54년생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니 부담이다. 66년생 초하루기도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78년생 기업이던 개인이던 이윤추구를 위함이 아닐까. 90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이익을 얻는다.
- 양** 43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저하지 실망은 금물. 5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67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충돌을 조심. 79년생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이다. 91년생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라.
- 원숭이** 44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생긴다. 56년생 미련은 버리는 것이 좋다. 68년생 자존감이 지나쳐서 가족을 힘들게 한다. 8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우선시. 92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 닭** 45년생 나이 먹어 회로애락을 너무 나타내지 마라. 57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하면 좋은 결과. 69년생 목이 마르면 직접 우물을 파라. 81년생 시택포함 가족도 서로 도우며 만들어 가는 것. 93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들다.
- 개** 46년생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 58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 먹는다. 70년생 삼재라서인지 뒤늦게 부모님 생각이 간절. 82년생 상생을 하니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9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 순조롭다.
- 돼지** 47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상인가. 59년생 과대포장은 오히려 속 보인다. 71년생 거품이 사라지니 현실은 냉혹하다. 83년생 공부로 실질적인 힘을 보태라. 95년생 상식과 도덕심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중국 최고 부자와 풍수

중국 항저우에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 그곳은 호설암 고택이다. 호설암 고택은 개인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규모이고 정원이나 연못의 아름다움도 뛰어나다. 이런 호화 저택을 소유했던 호설암은 청나라 시대의 거상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호설암은 도시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기도 했지만 곧 상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사람을 다루고 기회를 잡는데 남다른 능력을 보였던 그는 중국 최고의 상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소유한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살았을 때는 재물의 신이라 불렸고 죽은 다음에는 상업의 신이라고 불렸다. 호설암은 생전에 풍수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 기운이 좋은 곳에 있어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믿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

호설암 고택의 창문은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그가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풍수에서 파란색 계열은 액운을 막아주고 성장과 풍요를 의미한다. 거부 호설암이 파란색을 택한 것은 재물이 늘어나고 풍요를 이룬다는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설암은 항상 풍수 명당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터에 자리하는 건물의 형태와 장식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다. 풍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꼭 지킨 것이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명당 자리, 명당의 기운을 잘 운용하는 건물, 액운을 차단하는 장식까지 갖췄으니 호설암의 재물이 나날이 늘어났다. 후보지 몇 곳을 고른 뒤에는 풍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최종 조안을 받는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한 곳을 신중하게 고른다. 사업을 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풍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8	1	4	9	9	6	8	2
9	4	2	8	6	7	9	8	1
8	9	6	8	1	2	9	7	4
1	8	7	9	8	6	4	2	9
2	6	8	9	8	4	1	9	7
9	9	4	7	2	1	8	6	8
8	7	9	1	9	8	7	4	6
6	1	8	2	4	8	7	9	9
4	2	9	6	7	9	8	1	8

2	7	8	9	1	4	9	6	8
9	8	6	7	8	4	9	1	2
1	4	9	6	9	2	8	7	8
7	6	9	4	1	9	8	2	8
9	2	8	8	7	9	6	4	1
8	1	4	8	2	6	9	9	7
6	9	7	9	7	1	6	4	7
8	9	7	1	4	8	2	8	9
4	9	1	2	6	8	7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74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득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뭇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해야”

1년여간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중위소득별 구분, 최대 36.6조 필요 기초연금과 연계 시 효과 극대화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현'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해주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젠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며 디딤돌소득을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딤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디딤돌소득 K-복지모델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를 시작했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우선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무능력 입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약 13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 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와의 관계성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해외에서도 한국어 전자책 14만 종 대어

서울시교육청, 한국어 학습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을 통해 일본 등 26개 재외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추진되는 '재외한국교육원 전자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증가하는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해외 학습자들의 한국어 도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일환으로 재외한국교육원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도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 국가에 종이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하는 독일·미국·일본·프랑스·호주 등 26개 재외한국교육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재외한국교육원은 약 14만 종의 한국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국제식품박람회서 무역활동 펼쳐

해외 바이어 상담 22건 진행 등 성과

인하대학교는 최근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국제 식품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음료 박람회로 매년 95개국 이상 바이어와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인하대 GTEP 사업단 소속 김동모, 김재원 학생은 협력업체인 ㈜부각마을

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총 22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시키는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GTEP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계 요구에 맞춘 해외지역 특화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19년간 사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무역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전통시장 점포 위치, '입체지도'로 한눈에

서울시,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9곳 고정밀 데이터 수집, 3차원 지도 구현 층별 점포, 안전시설물 등 주소 부여

그동안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찾아가기 힘들었던 전통시장을 다양한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체지도가 구축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



3D 입체주소 모습. /서울시

은 전통시장에 X-Y-Z 좌표로 구성된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3D지도를 구현,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이번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하나의 주소로 통칭하는 것이 아닌 출입구를 기준으로 실내의 스팟에 대한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이른바 '서울시 전통시장 유형별 주소부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시장을 공간구조에 따라 시장 내 점포 등의 위치와 소방안전, 대피보안, 전기가스안전 시설 등의 위치를 수집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최첨단 장비인 스캐닝 라이더를 활용해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수집하고 이를 점포, 주요 안전시설물을 비롯한 객체 정보와 결합 후 3차원 입체주소 및 지도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구리시, 상권 활성화 '와구리맛집' 순항

숨은 맛집 발굴해 지역 상권에 활력

구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우수 시책으로 추진한 '와구리맛집' 지정 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와구리맛집'은 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구리시가 인증하는 대표 맛집으로서 음식문화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와구리맛집'과 '노포식당'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1회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와구리맛집'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총 28개의 '와구리맛집'과 2개의 '노포식당'을 지정했으며, 올해도 숨어 있는 우수 맛집을 발굴하여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8호선 개통을 계기로 숨어 있는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구리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교육청,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교류

예술교육 콘텐츠 공유, 예술인 양성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수 예술교육 콘텐츠 공유로 학교예술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해 서울예술향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교류 교육 사업

을 위해 ▲전시 해설 및 시설 투어 제공 ▲다양한 규모의 시설 사용 지원 ▲찾아가는 & 찾아오는 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홍보 협조를 주요 사업과제로 선정한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 학생 창의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상호협조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5일(화)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8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28 | 해질 / 18:48

연천 6/18

동두천 8/18

가평 7/19

파주 6/17

서울 8/20

양평 8/21

용인 8/20

평택 7/22

백령도 5/12

인천 6/16

수원 8/20

평택 7/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외교 “日총리, 중국 입장 존중한다 발언”...日 정부 “사실과 달라”

▲중국 3번째 항모 7번째 해상시험...올해 취역 가능성 커져

/사진 뉴시스

▲“유럽, 미국산 무기 무력화 ‘킬 스위치’ 우려... F-35 구매 재고”

▲트럼프 “케네디 암살, 오스왈드 단독범행 아닐 것”

▲이스라엘 내각, 이번엔 검찰총장 해임 절차 착수

▲외신도 ‘韓탄핵 기각’ 긴급 타전...“尹 선고 미정에 불안감 커져”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업 강화 등
마케팅 사활
니



Life

에스티팜
신약 CDMO
본격화
L2



100+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장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주최 : metroseoul · metroseoul경제

깊어진 저성장 늪... 확 뜨는 잭팟보다 '확실한 재테크'를

불안한 국제정세 저성장 대비해야
초고령사회, 노후 보장 재테크 필요
주식·부동산·절세 등 전문가 강연

'아보하'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풀이 하자면 '아주 보통의 하루'다.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의미다.

다만 모든 행복에는 유지비가 필요하다.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테크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성 90.7세, 남성 86.3세를 기록했다. 5년 전 평균수명보다 각각 2.2세, 2.8세 늘었다.

100세 시대에 아보하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빵 터지는' 고수익을 기대하고 재테크 하기보다,

소소하더라도 길고 확실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확재(작지만 확실한 재테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저성장에 대비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12·3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고, 미국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에는 성장률이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16~64세) 인구가 줄면서 생산하는 생산력은 낮아지고, 소득도 부진해 소비·투자 비중이 줄어들어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가 0.75명인 상황에서 대다수는 본인이 마련한 재테크 방식으로 노후까지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오는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포럼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중장기적으로 저성과와 저금리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대응책을 강연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트럼프 정부는 악달러와 저금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한국, 일본의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13:30~14:00	
14:00~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14:10~14:15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5~14:50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전망
14:50~15:25	강연	염승환 LS증권 이사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 증시전망과 투자전략
15:25~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
16:00~16:35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상무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고 설명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전문가는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라는 주제로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유리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상무는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연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 자산 재설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급변하는 세계경제 대응방안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이번 기조강연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및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맞닥뜨렸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는 종료됐지만, 각국 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의 출범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40년 경력의 경제분석 전문가이자 서강대 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영익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금융 불균형 해소과정에서의 저성장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환율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및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 운영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해나증권 부사장

염승환

LS증권 이사

트럼프2기, 눈여겨볼 주식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미국과 한국 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무역 적자 ▲부채 ▲제조업 붕괴 등 3가지 문제 회복에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의 매력력이 떨어지고 한국 주식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제로 미국의 정책기조와 미국 예외주의의 종료 등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주식투자전략'에 대해선 ▲한국의 매력 ▲인공지능(AI) 사이클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염승환 이사는 눈여겨볼 종목으로 전기차와 액화천연가스(LNG), 화장품, 식품, 증권 등을 제시한다.

- 온라인 주식 영업, 교육 및 홍보 담당
- KBS, MBC, SBS, YTN 등 고정패널 출연
- POSCO, LG전자, 포항공대, 국회 등 강연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상속세 개편 '절세노트' 공개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안내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개편한다. 상속 분배에 따른 상속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최적의 분배 비율을 설계하는 '절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해졌다.

호지영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주요 내용 요약 ▲유산취득세 시행 시 영향 및 절세전략 등 상속세 개편 이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할 전망이다.

- 전 대신증권 WM추진부
- 전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
- 전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

연금계좌로 절세·노후준비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은퇴 준비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 소개한다.

은퇴 준비 전문가로 통하는 김동엽 본부장은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하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은퇴 준비 계획에 대해 강연한다.

165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다. 우선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으로 ISA 가입 및 재가입 방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가입과 만기 납입, 재가입 시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 전 한국FP협회 이사
-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변수 속 실수요자 전략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울출박(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하고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박 원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상승장이 아닌 회복기'라며 '타이밍보다 가격에 집중하고 실거주 중심의 관점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청약 전략, 갭투자 위험성, 1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타이밍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단순한 시세차익보다 '행복한 거주'를 위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전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투자권유 자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부상 복귀' 이정후, 트리플A팀 상대 2루타 작렬...2타수 1안타 /사진 뉴시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쿠팡플레이로 본다...전 경기 생중계 계약 확정

▲펜싱 남자 플뢰레 이광현, 리마 그랑프리 동메달
▲조코비치, ATP 1000 역대 최다승 달성...마이애미오픈 16강 진출

▲女육상 경기사 트랜스젠더 '신기록'...2등과 무려 10초 차이 우승에 논란
▲"국제스케이팅장 유치 사활" 동두천시, '빙상도시'로 질주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그리움을 굽는 토스트 가게'

제가 토스트를 다시 굽기 시작한 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워서였어요

새벽마다 양배추를 썰고 철판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서 있으면
힘들긴 해도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던 어느 날,
AI의 도움으로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뵈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와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의 마음까지 배부리 채워드리고 싶으시다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도 이 가게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립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가게 사장님의 희망 곁에
늘 KB가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도봉구 창동 '할머니 토스트'
정수연 사장님
40년 동안 착한 가격으로 토스트를 만드셨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은 며느리 사장님의 토스트 가게입니다

시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며느리 사장님과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KB
국민 함께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KB마음가게'

KB금융그룹은 어려운 시기에도 착한 가격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희망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